

제10회 임실N치즈축제 준비 만전

10월 3~6일 개최... 30여일 앞두고 성공추진 최종 점검·준비 상황 보고회 가져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2024 임실N치즈축제는 더 새롭고, 더 풍성하고, 더 차별화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관광객을 맞이할 전망이다.

군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임실읍 일원에서 열리는 제10회 2024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성공적인 축제 추진을 위한 민반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임실군은 지난 4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심민 군수가 주재한 가운데 부서 및 유관기관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군은 지난 4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심민 군수가 주재한 가운데 부서 및 유관기관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갖고 빈틈없는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고회는 심 군수를 비롯해 국실과장, 축제 제전위, 유관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광객 안전 대책과 축제장 구성 등 축제 전반에 대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4일간 개최되는 임실N치즈축제는 유렵형 참미원을 시작으로 화사하게 관광객을 맞이하고, 축제장 곳곳에 놓인 천만송이 국화꽃이 아름다운 가을날의 향연을 선사한다.

또한 관광객들 입장에서 안전하고 마음 편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계획 및 재해 대책을 꼼꼼히 마련한다. 임실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축제장 내 향토 음식들이 적정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N치즈축제는 심민 군수의 재임 기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2015년 처음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는 첫 해 10만여명에서 지난해 55만여명을 기록하는 등 50여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

제로 자리잡았다.

심민 군수는 "올가을, 대한민국 치즈수도 임실군에서 열리는 10주년 임실N치즈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예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새로운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니, 많이들 오셔서 치즈축제의 색다른 매력에 빠져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축제 기간에는 인기가수 박지현, 김희재, 정서주, 손태진 등의 공연이 펼쳐질 것으로 전해졌다.



'복흥 생강' 새로운 효자작물 부상

순창 복흥 생강연구회, 1년 만에 회원 2배 · 재배면적 40ha 성장

순창군 복흥 생강연구회(회장 박동현)는 지난 4일 순창 인계면 실랜드에서 단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특화 농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복흥 생강 재배 사업의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흥 생강연구회는 작년 소득사업 발굴과 작목 개발을 목표로 30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으며, 불과 1년 만에 회원 수는 60명으로 두 배 증가하고 생강 재배면적 또한 40ha로 확대되는 등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생강은 유기물이 풍부한 비옥한 양토 또는 사질양토에서 잘 자라며, 지하수 수위가 낮고 배수가 잘되는 토지를 선호한다. 복흥 지역은 이러한 생강의 재배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어 생강 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호한 기상 조건으로



작황 또한 좋아, 회원들은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협약도 체결됐다. 복흥생강연구회 박동현 회장과 '베트남과 함께하는 세상' 박종훈 대표가 맺은 계절근로자 협력 협약은 만능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소방서, 군 장병 위문

남원소방서는 지난 4일 남원외용소방대연합회(회장 공은태, 광정화)가 추석명절을 맞아 군부대를 위문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7733부대 3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 2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전달하고 격려의 말도 함께 전했다.

연합회는 2018년부터 재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연합회장들은 "타향에서 명절을 맞은 군 장병에게 부모님 대신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뜻깊은 자매결연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누리시민제도 혜택 누리요"

누구나 가입만 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어



남원시는 2025년 생활 인구 40만명에 목표를 두고 인구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2일부터 누구나 가입만 하면 시민에 준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원누리시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남원누리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자매결연 체결 도시 주민(밀양시, 구로구, 서초구, 아산시, 광양시, 화성시, 성남시, 여주시), 남원사랑상품권 발급 증표를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누리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지리산허브밸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무료입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인 19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남원누리시민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카페숍, 제과점 등의 이용 시에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 축제, 이벤트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생활인구정책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남원누리시민증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시설·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사진)은 "생활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재방문이 중요하며, 남원누리시민이 되어 남원의 역사와 문화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지역 활력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5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소' 개소식을 가졌다.

'제19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순창의 맛과 전통이 집약된 '제19회 순창장류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순창군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민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순창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장르체험 행사와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에 순창군은 지난 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연기남 부군수의 주재로 관련 부서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축제의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홍보 및 프레스센터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자원봉사단 운영 등 축제 전반에 걸친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과 원활한 교통 관리, 그리고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역 소식통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제27대 장취군 소장 취임

임실군이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 제27대 장취군 소장(사진)이 취임하여 본격적인 농촌 지도사업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임 소장은 임실 출생으로 1989년 3월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35년간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농업·농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장 소장은 취임 후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 등을 방문하여 향후 농업 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취군 소장은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농업인 한 분 한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 유통매장 대상 과대포장 집중 점검

임실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의 대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관내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과대포장과 관련해 포장재질과 포장공기비율·포장 횟수 등 포장방법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적정 표기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할인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류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삼합류(원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 제재 및 수입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